

코앞에 다가온 하느님의 왕국

[2]

사람 속에 자아(自我)라고 하는 주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스스로 계시는 주이신 하느님을 거스르고 사람의 사이마저 자기 쪽이 아니면 비방하고 쟁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숨까지도 쉬어지는 덕으로 사는 생명이 무슨 스스로 있는 자신이라고 자기를 위하여 장래의 야망을 설계하고 그 욕망에 집착할까?

세상만사가 인생의 자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닥칠 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머리털 한 터럭조차 희게도 못하고 검게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장래의 일을 맹세할 수 있으리까?

스스로 계시는 자는 하느님 뿐이오. 그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과 같은 정의(定義)가 아니면 그 정의에 사람이 속는 말일 뿐입니다.

하늘이 하느님께 종속된 아래 것이어서 하느님의 보좌이고 땅도 그에 달린 아래 것이어서 하느님의 발 등상입니다.

상천 하지에 진실로 계시는 주체는 하느님 이외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하늘에 걸고 맹세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계셔서 있게 된 그 하늘에, 또 다른 뜻을 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천지가 하느님의 뜻대로 생겨서 있고 예루살렘도 그 뜻대로 오실 자의 성이 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 무엇이라도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ㄱ. 눅12:17~20 ㄴ. 마5:33~37 ㄷ. 출3:14 ㄹ. 시119:143, 151, 160 ㅁ. 요5:32, 8:16, 17:17 ㅂ. 사66:1 ㅅ. 마5:34~35 ㅆ. 신4:39 ㅈ. 수2:11 ㅊ. 대하20:6 ㅋ. 마5:34~36

불도에서 마음의 모든 집착을 비울 것을 가르치듯, 사람으로서 자신의 뜻을 내세워 맹세하지 말 것을 예수께서 명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만이 먼저입니다.

동방에서 옛 사람들의 언습(言習)에 나의 뜻이니, 나의 생각이니 하며 「나」 라고 하는 말로 주어를 삼아 말하지 않고, 언제나 속담이 아니면 옛 글귀라도 먼저 읊고 나서 그러하니 그런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에 주신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고 인생은 오로지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선창하고 뒤를 이어 복창하듯 말 한마디 언사라도 먼저 옳다는 말씀이 계시면 옳다고 그 말씀을 먼저 하여서 주장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뒤를 좇아 옳다고 시인하든지,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그래서 아니다 라고 부인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선한 님이신데, 좇아 난 근원이 의로우신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만이 계신 것이거늘,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지어낸 왜곡일 뿐입니다. 사람의 정의 중에는 선하고 옳은 주장도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이 악하고 그르다

ㄱ.마5:37 ㄴ.마19:17 ㄷ.막10:18 ㄹ.시14:1~3, 53:1~3 ㅁ.롬3:10 ㅂ.요5:30

예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가 유명인이나 신학자의 이름들을 거론하며 그 논설에 의거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정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어떤 것이라는 등, 자신은 이렇다고 생각한다는 등 하며 사람의 주장과 가정을 늘어놓는 행위는 모두가 악으로 좇아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어서 사람의 논설을 덧붙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으면 그럴 뿐이고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닐 뿐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 일 점, 일 획이라도 사람으로서 필연이 유의하고 존중하여서 따라야 할 철칙이어서 적은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도 아니 되고 보태서도 아니 되는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이든 사람 사이를 찬성의 시(是)와 반대의 비(非)로 쪽을 내어 머리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쪽의 주장이 법이 되고, 약소한 쪽이면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민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살인하여도 다수가 찬성하면 그 살인이 정의가 되는 주의가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상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주(主)이시오. 사람이 사람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주를 믿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하여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대중을 선동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이면서 자신만이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자로 속여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천주주의만이 인생이면 가져야 할 유일한 주의요 사상입니다.

내 주의와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으로 내 생활을 하다가 일요일이면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 특정한 의식으로 예배하여야 하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이 서로 각기 다른 사회적 분야로 나뉘고 그 중의 종교 분야가 다시 나뉘어 특정 종교계 인사들이 자기네와 같은 전문인의 신분을 위하여 수업을 받고 연구하는 대상으로 하느님을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열납(悅納) 하시는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儀式)의 예배가 아니라 인생의 선행입니다.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자에게 종교의 신은 천지의 주가 아니라 그 인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여서 지어낸 그의 객체일 뿐입니다.

세상 만민의 주가 천주이시니, 만인이 천주에 의해 태어났고 천주에 의해 살아가며 죽어서도 그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그 주이십니다.

세상은 그 주를 버리고 민주를 만들어서 그 주의를 따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역사 누천년에 인생이 현세와 같이 천상의 신명까지 부정하고 오직 인간만이 천지의 주인인 양, 인간이 인간의 주의를 외쳤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두려워하였고 의당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왔던 천륜(天倫)의 도리를 지녀왔으나 지금은 그 도리마저 다 팽개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서로 자기나 자기네 쪽의 이권과 주권을 위하여 싸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주이시건만, 사람들이 민주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저마다가 옳고 저마다가 주인이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천주의 뜻이 계신 데, 사람의 뜻을 두고 어찌 감히 주의(主義)라고 말할 수 있으리오. 이 사람도 달렸고 저 사람도 달린 천주(天主)밖에는 참되고 옳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나.

ㄱ.창4:5~7 사1:10~17 마7:15~27 ㄴ.시14:1~3, 53:3 눅18:19

하느님께서 인생에 내리시어서 이 사람의 이 속에도, 저 사람의 저 속에도 품어 있어야 할 말씀이 계시니 그 말고 무엇이 진실로 인생에 주의가 되고 주장이 될 수 있으리까.

이 사람의 이 주의와 저 사람의 저 주의가 있는 한, 그 사이에는 시비(是非)밖에는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 될 것을 가르치셔서 그 인생을 도리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사단(魔鬼)은 반대로 인생이 주인이라고 가르쳐서 그 그를 거꾸로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그 속에 하느님의 신께서 인생에 주신 말씀이 들어 있는 책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몸소 듣고 보고 체험한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증언하였던 그 증언을 기록한 문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쓴 문서가 신약 성서입니다.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느님의 신께서 불러주신 말씀이 있고 또 그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자의 행적과 말씀이 있음에도 사람으로서 이 성서를 무시하는 자는 그만큼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천진한 품성이 매몰되어 있거나 사람의 논설과 풍설로 인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목숨을 잃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자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죽음을 목전에 두셨을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아뢰시었습니다.

천자께서 목숨을 잃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그때에 오셨다고 하시고 그 죽음을 목전에 두시

ㄱ.요8:37, 15:7 ㄴ.창3:5 ㄷ.요8:34 ㄹ.요일1:2 ㅁ.계1:1 ㅂ.마11:25, 21:16 눅18:16 ㅅ.마16:14 요1:46, 7:12 ㅇ.눅12:12~16 ㅈ.마10:29 ㅊ.요12:27

고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원하시는 심정을 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보여주신 바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충효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아래 자식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중심에 내가 아닌 주(主)를 모셔서 그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충(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바,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할 유일하신 주상(主上)입니다나.

요임금은 사람의 재능을 보고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에게 학대만을 일삼는 부모를 섬기느라고 나이 마흔이 되도록 장가조차 가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좋게 보아서 그에게 자기의 두 딸을 다 주어 장가를 들였고 천자를 가졌음에도 자기의 왕위까지 순에게 물려 주어서 자신의 성씨 쪽이 대를 이으며 누릴 왕조의 영광마저 버렸다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도 있기 전, 아득한 시초부터 내려오는 교훈은 이와 같은 충효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충효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길이 무엇보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가 우선이어서 하늘에 계시는 주를 모시는 충성이 첫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효성을 위시하여서 그같이 서로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 바로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태고부터 그 같은 충효의 교훈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어서 임금이 신하에게 처벌로 사약을 내릴 때조차 신하는 신하 된 도리로써 그 임금을 향하여 큰절을 하며 사약을 받았던 관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처형이 사람을 벌거벗겨서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게하고 시가지를 지나게 하여서 만인 앞에 전시시킨 후에 그 십자가에 사지를 산 채로 못을 박아 장시간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높다랗게 걸어놓는 로마의 형법입니다.

ㄱ.요6:56, 14:20, 15:4 ㄴ.사9:6 마5:35 요18:37 ㄷ.출20:3~17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강점하여 로마의 형법을 시행하게 한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그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오.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코앞에 두신 상황에서 당신의 그 치욕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요망하심으로써, 천지의 주재(主宰)께 진정한 큰절을 드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먼저 ㄱ 당신네 쪽을 이같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보다도 더 소중해 하시는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인생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안식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처럼 옛세를 일하시다가 하루 쉬시고 다시 일하시는 안식이 아닐 뿐더러 과거에 하루를 당신께서 쉬셨다고 하여서 사람에게 그날을 자손 대대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서는 하느님께서 인생에 주신 하느님의 언약이고 교훈이지, 한낱 과거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안식하시고 나서 인간의 예기치 못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결과가 그르치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죄악입니다.

하느님의 안식은 하느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ㄷ 의미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공입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나오는 생명의 빛이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비추어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ㄹ 어둠이 없는 그의왕국을 결국은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ㄴ 말씀하신 땅이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전의 모습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으시는 일을 다하시고 안식하신 때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ㄱ.요1서4:19 ㄴ.사53:5 요1:29 요일2:2 ㄷ.계10:7, 21:6 ㄹ.마6:10 ㅁ.창1:2

성서는 그같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땅』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첫 말씀 바로 뒤에 있어서 땅이 성서 중 꼭대기 다음으로 있는 말씀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ㄱ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ㄴ 하느님의 『첫 열매』 가 ㄷ 나타나고 그 열매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세상이 ㄹ 이루어지는 내용이어서 결국 하느님의 만고의 뜻이 땅에서 유종의 결실을 맺는 예언의 문서가 성서입니다.

성서는 이 땅의 이 세상을 ㅁ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임이 하느님의 독생자이심을 증언하시는 ㅂ 말씀입니다.

빛의 승리입니다. 밝음이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시하여 지어진 모든 생명을 다 가두는 어둠은 어둠 중에서도 여섯째의 밤입니다. 인간이 본시 없던 데서 나와 결국은 다시 영원히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둠이 주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낮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그 여섯째의 어둠을 넘으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초자연적인 몸을 인생에 나타내셨습니다.

그제 칠일의 임자께서 ㄷ 천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ㅋ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ㅌ 친히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ㅍ 시온의 정부를 세우시고야 ㅎ 마는 것이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는 ㅊ 일곱째 날의 밝은 빛이 인생과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비추시어서 대명천지가 되어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인생에 언약하신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ㅊ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지만 ㄱ 그것으로 당신의 지으시는 일이 다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ㄱ.계1:1 ㄴ.계14:3 ㄷ.약1:18 계14:4 ㄹ.계5:10, 20:4 ㅁ.요3:16~17, 12:47 ㅂ.요5:39 ㅅ.창1:31 ㅇ.창1:5 ㅈ.요일1:1~2 ㅊ.마12:8 막2:28 눅6:5 ㅋ.마28:18 히8:1 계3:21, 7:10 ㅌ.마16:28 요17:2 ㅍ.계19:15 ㅎ.단2:44, 7:14, 27 미4:7 눅1:32~33 ㅊ.계22:5 ㅋ.계10:7 ㅋ.창1:31

하느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도 하느님과 그의 아드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은 ㄱ 당신네의 뜻이 세상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ㄴ. 천자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ㄷ 말씀하신 그 밤입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에 탄생하신 창세의 빛이 여섯째 날에 지어진 인간의 나라에 오시어서 세상의 빛이 ㄹ 되어 계셨으나 그 빛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밤이오.

그 천상의 천자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ㅁ 세상에 계시어서 세상을 친히 비추시어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임금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임금의 나라가 가까이 온 천국입니다.

밤이 온다고 하신 말씀은 상제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라』 라고 ㅅ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천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권세로 친히 다스리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대적(對敵)이 ○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둘도 없는 독자를 보내셨건만 인간은 그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 대신 자기네의 통치자를 뽑아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이 세상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가라사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ㄱ.요5:17 ㄴ.마25:6 ㄷ.요9:4~5 ㄹ.요1:4~5, 9~10 히8:12 ㅁ.계22:20 ㅂ.마6:10 ㅅ.요14:30 ㅇ.단7:25, 8:25, 11:36 데살후2:3 요일2:18, 4:3 계13:1~8 ㅈ.마10:15, 12:18~20, 19:28 요5:22~30, 16:8~11 계19:11~16, 20:4 ㅊ.요11:9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지의 진정한 주를 배반하고 그 주권을 강도질하여서 자기네가 천지의 주인 노릇을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온통 오염시키며 파괴하기에 이르렀고 하느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을 좇는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핍박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하느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장자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세상의 장자들을 치셨던 모형의 실상이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느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지으실 수 있으신 것이나, 그렇게 지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니,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시는 것과 하느님께서 생산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자격과 권능을 행사하시어서 당신의 그 지당하신 천자의 자리에 계시면 당신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인생은 어디까지 잠깐 있다 들플같이 사라지고 마는 속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과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으로 탄생하신 임과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 차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 영생이나, 그 사람에게 망극하기 이를 데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셔서 영생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생산하셨던 하느님의 신께서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넘어서 인생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이요,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음(福音)이 있을 수 없습니다.

ㄱ. 요12:31 ㄴ. 마24:22 막13:20 ㄷ. 계21:3~4 ㄹ. 창27:36 출4:22 ㅁ. 출4:23, 13:15 눅16:8 ㅂ. 시103:15, 사40:6
ㅅ. 창1:2~3 ㅇ. 창2:7 ㅈ. 창1:2 ㅊ. 마3:11, 10:20 요14:16, 15:26, 16:7 행2:33 계5:6

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그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인생 위의 권좌에서 만민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간의 권세아래에서 정죄를 받으신 공과입니다. 주께서 뒤집혀서 인생을 지으신 하느님의 죄 없으신 어린양께서 죄인들에게 유죄의 판결을 받으시고 처형 되셨으니 그 흘리신 피의 가치가 얼마나 지대할까. 하느님네의 그 큰 역사(役事)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의 운명이 거꾸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운명으로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자가 우선은 부자일지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운명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없어 가난한 자가 거꾸로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사람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다가오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우나 가버리고 마는 이 세상과는 거꾸로 가난한 자가 다가오는 나라를 맞이할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현 세상에서 돈푼이 있어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차원의 복이 이미 이루어져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자의 말씀에 복이 있는 자를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짐승과 달리,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는 현실과 거꾸로 되는 의미를 알아듣고 그 의미를 필기하였으나 마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필기하였기 읽는 자는 두 글귀가 다 같이 필요합니다.

약대의 몸이 커서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부자는 자신이

ㄱ.요3:17, 12:47 ㄴ.사53:1~11 요1:29 계5:5~14 ㄷ.계1:5, 5:9 ㄹ.사61:1, 66:2 마11:5 눅6:20, 14:13 ㅁ.마3:2, 4:17, 10:7 ㅂ.마19:24 막12:25 눅18:25 ㅅ.요19:30 ㅇ.마6:20

의지할 많은 소유를 지녔으나 의지할 재산이 없는 자는 그의 심령으로 의지할 하느님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교훈을 얻기를 원하였던 관원에게 이르시기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라고 ㄱ 하셨습니다. 그 관원이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의 마음이 있는 곳도 그만큼 불어나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비대하여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여도 부자는 이미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여 섬길 수가 없는 몸이 된 것이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하여서 육신으로 안락을 누리면서 정신적으로 도를 즐긴다고 말을 하면 우스운 소리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요. 똑같은 만원이라도 부자에게는 적은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는 큰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중 적은 것이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령이 거만하기로서니 인생으로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여도 되는 것일까? 사람이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중대하게 여기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의 신에 ㄹ 범접하게 되었으니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느님의 신을 받게 ㅁ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보다 값진 보화는 없습니다 ㅂ.

ㄱ.마19:21 ㄴ.마6:21 눅12:34 ㄷ.마22:37~40 ㄹ.요14:17, 16:13, 17:17 요일4:6 ㅁ.계5:6 ㅂ.눅11:13 행2:38

하느님께서 당신의 첫 말씀부터 당신을 지칭하신 명사를 복수로 말씀하시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당신의 유일하신 아드님을 여러 각도로써 수없이 증명하시어서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건만 ㄱ 성서를 보면서도 하느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여 자랑스러운 쾌거의 축배를 드는 자가 복 있는 자이나 앞으로 필연이 닥치게 될 운명은 거꾸로 애통해 하는 자가 ㄴ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애통해 하는 만큼 하느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락을 누리는 자는 거꾸로 탄식하게 되나 ㄷ 애통해 하는 자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는 서로 상반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ㄹ. 지금의 이 세상은 남과 모질고 냉혹하게 경쟁하여서 남을 물리쳐야 성공하는 세상이나 앞으로는 거꾸로 되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ㅁ. 자기 쪽의 힘으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정복함으로써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땅을 운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남에게 따뜻하고 어질게 대하여서 양보하며 손해를 보는 만큼 하느님께서 보답하심으로써 인생이 받을 받는 이 땅을 유업으로 ㅂ 차지하는 복입니다.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며 과시하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자신의 불의를 자각하여서 의(義)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그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던 만큼 의로 채움을 받아 배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이같이 거꾸로 되돌려서 보답을 받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ㄱ.요5:39 ㄴ.사61:2~3 마5:4 요16:20 약4:9 계21:4 ㄷ.눅6:25 ㄹ.눅18:9~14 ㅁ.시37:7~11 마5:5 ㅂ.마19:29, 25:34 갈3:18 벰전3:9 계21:7 ㅅ.사55:1 마5:6, 6:33 요7:37

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ㄱ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거꾸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쪽을 위한 욕망의 길은 하느님의 면전을 떠나는 길이나 ㄴ 그 방향을 거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하여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피를 흘리셨으니 ㄷ, 털끝같이 사소한 허물이라도 있는 대로 자백하고 ㄹ 회개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ㅁ 복이 있습니다. 그는 세인들이 못 보는 하느님을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서로 자기네를 위하여 남의 쪽을 헐뜯고 공격하는 세상에서 회개한 자는 반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쪽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반대로 복을 빌고 ㅂ 왼 쪽 뺨을 치는 자에게 거꾸로 오른 쪽까지 내어주며 겉옷을 취하려고 송사하는 자에게 거꾸로 속 것까지 내주어서 ㅅ, 대항하고 투쟁하는 것과는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ㅅ 복이 있는 것은 그는 십자가를 지신 하느님의 아들과 똑같은 종류가 ㅅ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인생을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ㅅ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화평케 하려고 자기가 해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됩니다.

예수의 교훈을 진실하게 좇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ㅋ 이르셨습니다.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려는 하느님의 모략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필연이 겪는 고난입니다.

ㄱ.사1:17 마5:7, 18:33~35, 25:34~40 눅6:36 ㄴ.창4:14 ㄷ.엡1:7 히9:14 요1서1:7 계5:9, 7:14 ㄹ.요1서1:9 ㅁ.시24:4 마5:7 요15:2~3 ㅂ.마5:43~45 눅6:27~28 ㅅ.마5:38~42 눅6:29~31 ㅇ.마5:9 ㅈ.마5:45~48 눅6:35 ㅊ.롬3:25 요일2:2 ㅋ.마5:11~12

예전 선지자들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으며 당신과 같이 미래에 당신을 따르는 자 또한 그러하리라고 ㄱ 예수께서 공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명색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열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의 여덟 가지를 천명하시어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八福)이라고도 합니다.

복은 복인데 그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이 뒤집혀서 돌아오는 복입니다. 순서대로라면 먼저 쪽이 양이고 나중이 음이나 그 양과 음을 뒤집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느님으로부터 인생에 임하시는 하느님의 지기(至氣)는 팔음팔양(八陰八陽)입니다.

천자께서 여덟 가지 음에 따르는 여덟 가지 양을 말씀하시어서 당신과 같이 세상에서 음이 되어야 양으로 뒤집히는 운수를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여섯째 날에 지어진 인간보다도 나중이신 일곱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순위가 뒤집혀서 인생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객이 뒤집혀서 사람의 죄가 그 독생자에게로 넘겨져 독생자께서 그 벌을 받으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은 사람에게로 넘겨오게 되었습니다.

양(陽)은 별 양 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소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덟 가지 음이 있어서 여덟 가지 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을 잡아먹는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일곱째 빛을 거침으로써 말미암아 인생에 주어지는 복이어서 그 수를 여덟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ㄱ.마10:16-23 요15:19, 16:1-3, 17:14 요일3:13 ㄴ.창17:12 출22:30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요. 창세 전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음수(陰水)에서 밝은 양화(陽火)의 빛이 탄생하심으로써 비로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성서는 이 생명을 증명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니 이는 그 생명이 어둠을 깨뜨리고 탄생하신 빛이시어서 날(日)을 의미하는 낮이라고 칭함을 받으신바, 곧 하느님의 독생자(獨生子)이십니다 ㄱ.

하느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탄생하신 환한 빛이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으시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쫓아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요, 이것이 곧 하느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시므로 천부께서 주신 천자의 영화입니다 ㄴ.

둘째 날도 그 빛이시니 밝음이 어둠으로 마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생명의 빛이시요.

그와 같이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빛이신데, 결국에는 그 생명이 여섯째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자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어서 여섯째의 어둠을 이기고 일곱째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 있으시고 천자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좇으시어서 아버지를 돕는 자가 되셨듯이, 육신이 되어 오신 천자께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좇아 ㄷ 목숨을 버리셔서 ㄷ 인생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다시는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계신 ㄹ 천상의 원군이 되신 것입니다.

ㄱ.요3:16 ㄴ.요17:5 ㄷ.마26:39 눅22:42 ㄹ.요10:17 ㅁ.막12:36, 14:62

마치 인간과 같이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에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저녁이 되어 쉬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여섯째 날에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으나 ㄱ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여섯째 날을 넘기고 일곱째로 다시 나신 환한 낮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그 일곱째 날에 하느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이르셨습니다 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여서 하느님의 지으시던 일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생산하신 빛에 대하여 증명하는 ㄷ 글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ㄹ.

하느님은 곧 빛이시오 ㄴ.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어린양이 빛이 되어 계시는 ㅂ 나라입니다. 일월의 빛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이 밝은 곳에 거하여야 하는 처소입니다 ㄴ.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복 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그 빛 안에 안식하신 날이 하느님의 안식입니다 ㄹ.

천지 만물이 지어져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순전히 그 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ㅈ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 ㅈ 같이 아드님 또한 당신의 모든 것을 ㅋ 아버지께 바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ㅌ.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서로 사랑하시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ㅍ.

서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려서 양위가 하나입니다 ㅎ.

ㄱ.창1:31 ㄴ.창2: ㄷ.요1:8 ㄹ.요5:39 ㅁ.요1서1:5 ㅂ.계21:25, 22:5 ㅅ.눅 16:9 요14:2~3 ㅇ.창2:2~3 ㅈ.마21:38 ㅊ.눅10:22 요13:3 ㅋ.마22:37 ㅌ.요 17:10 ㅍ.요17:21~23 ㅎ.요10:30

성부와 성자가 몸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요. 서로 상대인 양위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뜻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ㄱ.

창세 전의 첫째 날은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생산하시어서 성자께서 성부의 품 안에 계심으로써 ㄴ 하나가 양위가 되셨으나, 창세 후의 일곱째 날은 아버지께서 낮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ㄷ 당신의 아드님을 거룩하게 하신 ㄹ 반면 당신께서는 그 빛 안에 안식하시어서 ㅁ 서로 안이시오.

서로 상대의 안에 계시어서 상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ㅂ 양위(兩位)시어서 이바지하시는 안쪽을 먼저 말하고 그 이바지로 말미암아 이룩하는 영광을 나중에 말하여서 음양(陰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께서 첫째 날에 천자를 보셨으니 천부와 천자의 사이는 아버지께서 양(陽)이시고 아드님께서 음(陰)이시어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일곱째 날에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 안식하시어서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었으니 양과 음이 뒤집혔습니다.

밖에 계신 자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의 안에 계시어서 ㅅ 이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하나이신 ㅇ 것이어서 음양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천자 외에는 하느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ㅈ.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인생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ㅊ 성자가 인생의 대웅(大雄)이신 양(陽)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언약의 피로써 인생과 가약(佳約)을 맺게 하신 인생의 유일하신 낭군이십니다 ㅋ.

천자께서 인용하실 때는 대부분 성서를 인용하셨으나 혹 속언도 인용하셨는데 ㅌ, 조선의 속담에도 써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자께서 세상에 오시어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어서 ㅍ 하느님의 선하신 실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셨습니다 ㅎ.

ㄱ.요17:21~23 ㄴ.요1:18 ㄷ.창1:5 ㄹ.창2:3 ㅁ.창2:2 ㅂ.요13:31 ㅅ.요10:38 ㅇ.요10:30, 17:22~23 ㅈ.요6:46 ㅊ.요 14:9 고후4:4 골1:15 히1:3 ㅋ.마9:15, 25:1 계19:7~9, 21:9, 22:17 ㅌ.마16:2~3 ㄴ.눅4:23 ㅍ.요12:49 ㅎ.요14:8~10

세상에 오셔서 위에서 섬김을 받으며 징계하시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아래에서 인생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 ㄱ 인생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당신께서 지신 것이오. 이것이 아니고는 율법을 주신 하느님께서 계신 이상,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가버리고 마는 세대의 ㄴ 세상이 선천이면 다가오고야 마는 차세대의 ㄷ 세상은 후천입니다.

하느님께서 목적하신 세상은, 충만하여야 할 사랑은 없고 그 반대로 없어야 할 불법은 극성한 ㄹ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불법은 없고 사랑만이 충만한 세대를 결국은 이루고야 만다고 하시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이 찾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오. 하느님으로부터 인생에 임하옵는 ㄴ 나라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신이 임하여 계신 인생이 하느님의 신께서 계시는 성전이 된 것이어서 ㄹ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ㄱ. 그의 속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서 그는 그 나라를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인(印) 치심을 받은 자들이 ㄴ 일어나, 이 땅에 재림하실 임금의 나라를 증언하여 그 나라가 세상에 가까웠음을 ㄷ 전파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ㄷ.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오셨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신의 왕권을 가지시고 ㄱ 친히 땅에서 천하의 만국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려고 ㄷ 재림(再臨)하시는 것이오.

재림하시는 그 날에,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는 일군은 심판을 받아 그 목숨을 잃게 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ㄹ 땅에서 구속(救贖)을 받아 ㄷ 거꾸로 목숨을 얻습니다 ㄱ.

ㄱ. 마20:28 막10:45 ㄴ. 마12:45, 17:17, 24:34 막8:38 ㄷ. 눅16:8 ㄹ. 마24:12 ㄴ. 마6:10 눅11:2 ㄷ. 고전3:16 고후6:16 ㄸ. 마12:28 눅17:20~21 ㄹ. 엡1:13, 4:30 계7:2~4 ㄱ. 마10:7 요15:27, 21:24 계11:3 ㄷ. 마5:10~12, 13:21 눅21:12 요15:20 ㄸ. 마16:28 ㄹ. 계19:15 ㄱ. 마10:39, 16:25 눅14:26 요10:17, 15:13 요일3:16 ㄷ. 롬8:23 엡4:30 계14:3 ㄸ. 요6:39, 6:54, 11:24 고전15:51

목숨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어서 땅을 ㄱ 기점으로 받고 땅에서 왕 노릇 하는 것이오 ㄴ. 영혼에 목숨이 있을 리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분명히 목숨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도 육체의 구원을 ㄷ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ㄹ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변화하여 땅에서 왕 노릇할 새 생명과 또 만인이 재앙으로 죽는 큰 환난 속에서 죽지 않고 육신이 살아남는 구원을 받아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맞이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ㄱ.

예수의 재림으로 이 땅에 ㄹ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ㄱ.

여섯째 날에 지어진 생명이 그 육신의 생명인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인데, 천지의 운명이 뒤집히지 않고서는 죽어버린 생명이 거꾸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ㄴ 다시 태어날 ㄷ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생명은 창조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모태가 되어 고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빛의 아들로 ㄷ 거듭나는 것이어서 예수의 복음은 음양의 도(道)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ㄱ. 양에서 음이 생(生)하는 양음(陽陰)이 아니라 음에서 양이 생하는 음양(陰陽)의 도가 곧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생과의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하느님은 곧 인생으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ㄷ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하시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자인 것 같이 하늘보다 먼저 탄생하셔서 여섯째 어둠을 통과하신 하느님의 독생자도 거룩하심을 부여 받은 ㅍ 성자이시고 성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같이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들을 ㅎ 생산하시는 자가 곧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ㄱ.마5:5 ㄴ.계5:10 ㄷ.마24:22 막13:20 ㄹ.요6:39, 6:54, 11:24 고전15:51 ㅁ.계7:9~17 ㅂ.마6:10 ㅅ.단2:44, 4:17, 7:13~14 계20:6 ㅇ.요5:24 ㅈ.요3:3 ㅊ.눅16:8 요12:36 ㅋ.창3:15 계12:5 ㅌ.출31:13 ㅍ.창2:3 ㅎ.눅16:8 롬8:19 계20:6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ㄱ.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ㄴ. 하느님의 뜻을 좇아 목숨을 버리셔서 인생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이 그의 발자취를 좇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경지를 개벽하셨습니다.

들풀같이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ㄷ.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부활과 변화는 ㄹ.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육신이 되시어 죽임을 당하셨기 열리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ㅁ.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의 한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느님을 무슨 수로 보일 수가 있으리오. 그러나 천자께서 하느님의 그 형상을 속속들이 밝혀주셨습니다 ㅂ.

궁창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느님과 그의 아드님께서 함께하시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양위가 하느님이십니다 ㅅ.

초자연적 행사를 동방에서는 조화(造化)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느님의 낮이라는 빛이 있으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음양의 조화로 천지 만물이라는 자연(自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제께서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의 식품을 가지시고 축사 한마디 하심으로써 군중 오천 명을 먹이셨던 ㅅ. 그 조화의 권능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ㅇ. 천지 만물도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 능력은 다름 아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 쪽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언행으로 나타내나, 천자께서 조화를 자유자재로 행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같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ㅈ.

천자께서 오로지 아버지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니 ㅊ.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ㅋ. 조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ㅌ.

ㄱ.창1:3 ㄴ.요1:14 ㄷ.창3:19 시103:15 ㄹ.요11:25~26 고전15:52 ㅁ.요12:24 ㅂ.요14:9 고후4:4 골1:15 ㅅ.마14:14~21 ㅇ.요1:3 ㅈ.요4:34, 5:30~32, 5:41, 6:38 ㅊ.요5:44, 7:18, 8:50~54 ㅋ.요8:54, 11:4, 13:32, 14:10 ㅌ.요15:7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드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셔서 도우셨으나 일곱째 날이 되어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우(保佑)하시는 임이 되신 것이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여섯째의 어둠을 내쫓으심으로써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ㄱ.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었습니다 ㄴ.

뜻이 만유의 운명을 짓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ㄷ.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태어났다가는 죽는 것이거늘 천지가 생긴 이래 그 법칙을 뛰어넘어 사망에서 거꾸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인자께서 부활하셔서 사십일을 지내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교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어 하늘의 보좌에 ㄹ. 앉으셨습니다.

인자께서 하늘의 으뜸가는 원군(元君)이 되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 계시어서 그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天父)의 아들, 천자이시오. 그 천부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계시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옥황상제이십니다. 그 옥황상제를 보통은 간략하게 상제라고도 일컫는 것입니다.

장차 땅에서 왕 노릇할 만왕이요 만주의 우두머리이시어서 원군(元君)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느님의 독생자이시니 이러한 칭호들이 성서에서 모두 하느님의 어린양을 지칭하는 명칭이어서 그러한 성서의 뜻을 동방의 이름 써로 이 서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천자께서 인자가 되시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과 천지 만물의 운명을 정하여 놓으신 하느님의 공사(公事)입니다.

성서의 계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ㄱ. 행2:32, 13:33~34 ㄴ. 요12:23, 28 ㄷ. 마6:10 ㄹ. 시110:1 ㅎ. 계5:11~14, 7:17, 22:1~3 ㅁ. 사9:6 계1:5 ㅂ. 마28:18 요5:27, 17:2 계5:1~5 ㅅ. 계17:14, 19:16 ㅇ. 계1:3, 4:1, 10:7, 22:7~10, 22:18~19

성서는 과거의 사실을 사람이 경험하고 기록한 역사가 아니요, 사람이 신에 집혀서 신의 뜻을 기록한 글로서 인생이 필연이냐 맞이하게 될 운명의 글입니다.

동방에서는 예언을 참언이라고 하여 왔고 예언을 쓴 책을 참서(讖書)라고 말하였던바, 성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자께서 말씀하신 인류의 운명서입니다.

인생에는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좌우로 계신 하느님과 그의 아드님께서 하신 말씀에 인생의 운명이 달려서, 인생이 하느님의 명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어기면 화를 받게 될 뿐, 아무라도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날에 지어져서 여섯째 날에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인간이 미래로 맞이하게 되는 운명은 인류의 시조로부터 대를 이어 내려 왔던 선천(先天)과는 뒤집혀서 맞게 되는 하느님의 응보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인생이 받아야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갚으셨기 천지 만물의 창조를 주장하시던 하느님의 신이 거꾸로 세상에 보내심을 입으시어서 인생을 보우하시는 보혜사(保惠師)가 되시었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책망하시어서 이 세상이 하느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권세가 멸망하는 것이요.

중국에서는 날을 하늘 천(天)자로 표기하며 부르듯, 천상의 원군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어야 비로소 후천(後天)이라고도 하고 명천(明天)이라고도 하는 새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의 줄거리들은 시종일관 하나같이 처음과 나중에 뒤집히는 내용입니다.

ㄱ. 행1:16 벰전1:11 벰후1:21 ㄴ. 마5:18, 15:4 행26:22 계1:1, 3:5 ㄷ. 출20:4~6 신6:3 사65:6~7 말2:2 ㄹ. 창1:26~29 ㅁ. 롬5:14 고전15:22 ㅂ. 슄4:10 계5:6 ㅅ. 요16:5~11 ㅇ. 요12:31 ㅈ. 마25:31 ㅊ. 사65:17, 66:22 벰후3:13 계21:1

여호와 하느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은 몸이 아니십니다. 만물보다도 더 처음이시고 또 더 나중에신 임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에신 천자이시고 천부께서는 그보다도 더 먼저이시고 또 더 나중에신 임이시어서 성부께서는 성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장하시어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하느님께서 안식하시고 만물보다도 더욱 나중이신 당신의 독생자에게 당신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써 천지의 운명이 뒤집혀서 먼저 생긴 천지 만물이 만물보다도 나중이신 자의 명을 좇게 된 것이어서 그 운명에 따라 세상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이 되어 뒤집히고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며, 상석을 차지했던 자가 말석에 처하고 말석에 처한 하인이 상석에 앉게 됩니다.

이제 웃는 자가 울게 되고, 이제 우는 자가 웃게 되며, 이제 의를 위하여 곤욕을 받고 천자로 인하여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자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수치를 당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요.

지금 세상에서 천자의 계명을 지키려고 잃는 금전이나 전토나 형제,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 이웃에게 내어준 물 한 그릇이라도 빠지지 않고 여러 배의 상을 받지만 자기 쪽을 위하여 경쟁해서 이웃으로부터 재물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크게 된 자일수록 괴로움을 당하는 내세(來世)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의 심판을 일곱째의 몸이신 상제께서 하시는 것이요. 판결하시는 그 옥황상제의 말씀에 따라 복과 화가 나뉘는 것입니다.

ㄱ.사44:6, 48:12 계1:8, 21:6 ㄴ.계22:13 ㄷ.요10:29, 14:28 ㄹ.창27:27~40 마20:16 ㅁ.마23:11~12 ㅂ.눅14:7~11 ㅅ.눅6:25 ㅇ.눅6:21 ㅈ.마5:10 ㅊ.마5:11~12 ㅋ.눅16:15 ㅌ.마19:29 ㅍ.막9:41 ㅎ.눅16:19~25 ㅊ.마12:18 요5:22~30, 9:39 계19:11 ㅌ.요12:48

하늘에는 인간의 언행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 행한 행실을 따라 상급과 형벌을 받는 내세를 필연이 맞는 것이요. 그 내세는 인간이 죽은 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희락이 내일의 고통이 됩니다. 사람이 복과 화를 말할 때는 화를 앞세워 화복이라고 하듯 주의 계명을 따라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장래에 당하게 되는 희락의 모태가 됩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오직 선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선행입니다. 사람이 진실한 교훈을 받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 진실한 행동을 하고 위선자의 교훈을 받으면 위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과 행실이 같습니다.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선한 자이나 자신을 위하여 천명을 거역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자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하여도 악한 자일 뿐입니다. 선하면 복이 있고 악하면 화가 있는 것을 가르치신 하느님의 말씀이 성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신이 계셔서 인간의 운명이 지어집니다.

진리의 신은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느님의 일곱 영입니다. 일진(日辰) 위에는 그 해의 운이 있듯, 개인의 운명 위에 국운이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 위에는 다시 세상의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임하듯 하느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나라이어서 상제께서 이 세상을 이 세대(世代)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여 복을 누리는 자는 화를 받으나 이 세대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화를 당하는 자는 도리어 복 받는 차세대가 열리는 것이요.

ㄱ.마12:36 계20:12 ㄴ.마16:27 ㄷ.마15:19 ㄹ.마5:18, 10:42 ㅁ.마7:15~20, 21:43 ㅂ.마7:21 ㅅ.마23:1~7 눅12:1 ㅇ.요14:17, 16:7 ㅈ.계5:6 ㅊ.마6:10, 10:7 ㅋ.막8:38 눅7:31, 16:18 ㅌ.눅16:8

인류 앞에 다가온 후천이 바로 가까이 온 7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하루가 있는 것도 밤과 낮이 뒤집혀서 있을 수 있고 한 달이 있는 것도 달이 기울다가 다시 뒤집히는 삭망으로 있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한서(寒暑)가 뒤집힘으로써 한 해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송나라 강절(康節)의 말과 같이 한 해 위에 다시 반복하는 세(世), 운(運), 회(會), 원(元)도 하느님의 양위(兩位)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어서 그 음양의 조화가 아니시면 천지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천이 있으니 후천이 있는 것이요. 이제는 천지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집혀서 선천지가 개벽 되는 2 그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큰 날입니다 ㄷ. 하느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지으신 창세(創世) 후로 이 세상이 겪어 본 적이 없었고 또 그 후로도 다시 없을 만큼 큰 환난이 ㄷ 닥치는 것이요.

이 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ㄴ.

망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숨이 넘어가는 것이고 수백 년을 지속하던 왕조라도 망할 때는 내란이든 외환이든 잠깐 만에 권좌가 뒤집히며 이 세상이 망하는 시한도 날짜를 손으로 헤아릴 만큼 잠깐입니다 ㄴ.

그 잠깐의 고비만 넘기면 천자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대명천지입니다. 사망의 기운이 힘을 쓰지 못하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어서 가가호호 만인의 수명이 나무의 수한같이 ㄴ 불어나는 새 세상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다가오는 운수야 이를 데 없이 좋다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환난에서 하느님의 보우(保佑)하심을 받아야 ㄴ 비로소 코앞에 가까이 온 하느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ㄱ. 마4:17, 10:7 ㄴ. 계21:1 ㄷ. 사34:1~5 ㄴ. 1:15 렘25:32~35 습1:14~18 ㄷ. 단 12:1 마24:21 ㄴ. 계4:1 ㄴ. 마13:39, 49, 24:3 ㄴ. 살전4:16 ㄴ. 단12:11~12 계17:10 ㄴ. 시91:14~16 사65:20~22 ㄴ. 계7:14~17

지상의 모든 생물이 멸절하는 환난이 ㄱ 일어나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점지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자수를 감(減)하심으로 ㄴ 환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무리가 ㄷ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ㄴ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에서 육체가 구원을 받아 ㄴ 살아남는다 ㄴ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이 있는 이상, 인생의 모든 죄는 하느님께 짓는 것이어서 그 하느님네가 아니고는 인생의 죄가 사하여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니 또한 그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ㄴ.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ㄴ.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으니 그를 믿고 그의 피로써 더러운 것을 빨아 흰 옷을 입어서야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백성은 백의(白衣)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믿고 회개하여서 밤낮 하느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길 외에는 하느님의 보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ㄴ.

승천하셨던 상제께서 죄인도 볼 수 있도록 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몸으로 몸소 ㄴ 당신의 계명을 지켰던 자들과 함께 천하를 심판하시고 또 만국을 다스리시는 ㄴ 정부를 세우시려고 ㄴ 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께서 천지를 폐(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 천지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ㄴ 과정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이 지어져서 그날에 받은 복으로 ㅎ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진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월함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 여섯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으로써 다 지나버리는 날이오.

ㄱ.렘23:19~20, 25:33 겔7:5~27 마24:21 계8:13 ㄴ.마24:22 ㄷ.계7:14 ㄹ.사10:22~23 마24:22 막13:20 계7:14
 ㄴ.요14:1 ㅂ.시14:1~3 롬3:10 ㄷ.계7:13~17 ㄹ.속12:10 요19:37 계1:7 ㅈ.막14:25 행1:11 살후1:10 ㅊ.계19:15
 ㅋ.마19:28 눅22:30 계2:26~27 ㅌ.사9:6~7, 32:1 단2:44 ㅍ.마19:28, 26:29 계21:1,5 ㅎ.창1:28

하느님의 어린 양은 세상을 구하시는 구세주(救世主)이십니다 ㄱ.
 이 인간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전멸할 운명밖에는 아니 되나 세상의 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을 믿고 속죄를 받는 자들이 죽어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ㄷ 또 만인이 죽는 환난에서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오.

그 큰 환난 중에 구세주께서 다시 강림하시어서, 환난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무리를 친히 다스리심으로써 이 땅이 새 세상을 맞습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ㄹ.
 세상의 빛이 인자(人子)이시오 ㄴ. 인자께서 세상에 계시는 때가 낮입니다 ㅂ. 인자께서 세상에 계시어 당신의 성은을 비추셔야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오. 그것이 하느님의 안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일곱 날은 인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하는 인간의 날들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양위께서 일하시는 ㄷ 하늘의 날이어서 그 하느님의 공사에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질 운명이 됩니다.
 천부와 천자께서 함께 일하셔서 이루신 ㄹ 공사대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은 그에 따라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ㄷ 것입니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인자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이고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ㄷ 그때에 살아서 증언하던 일군들이 변화하는 ㅋ 것이어서 그로부터 개막되는 빛의 아들들의 세대(世代)가 ㅌ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ㅍ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당신만 부활하신 그 영생의 경지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 경계를 개벽하신 주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들의 자리를 예비하시려고 ㅎ 승천하셨습니다.

ㄱ.요3:17 ㄴ.요1:29 ㄷ.계20:12~15 ㄹ.마19:28 ㄴ.요8:12 ㅂ.요9:5, 11:9 ㄷ.요5:17 ㄹ.요19:30 ㅈ.마6:10 ㅊ.살전4:16 ㅋ.고전15:51~52 빌3:21 ㅌ.눅16:8 요12:36 ㅍ.마6:10 ㅎ.요14:3

천자께서 거듭거듭 언약하신 그 마지막 날에 ㄱ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 있던 자가 홀연히 변화되면 그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인이 죽는 환난에서 육체가 구원을 받아 목숨을 건진 무리는 그 새 세상에서 어린양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나, 가까이 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ㄴ 종도와 또 그 종도와 같이 목숨을 다하여 따르는 말일의 일군들은 초자연적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가오는 그 나라의 왕들이 ㄷ 됩니다.

부활도 거듭나는 것이고 홀연한 변화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들이 아니라 땅에서 ㄹ 왕 노릇할 땅의 임금들입니다 ㄴ.
 천자께서 육신이 되시어 피를 흘리신 목적이 이것이오 ㅂ. 그 때문에 당신의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ㄷ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ㄹ.

인생이 얻을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육신은 무익합니다. 제 아무리 육신이 장사라 하더라도 그 힘으로는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 자연의 법칙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꼼짝없이 이끌려서 잠에 떨어지듯,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고 마는 몸이어서 영생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어휘가 무슨 뜻이오.

죽어서 영이 저 세상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 산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도록 살리는 자가 영이오. 혼(魂)은 비록 하느님의 말씀을 여기어서 죄를 범하면 죽으나, 영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유령이 아닙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ㄱ. 요6:39, 40, 44, 6:54, 11:24 ㄴ. 마10:37~39 ㄷ. 마19:28 ㄹ. 눅22:30 계3:21, 20:4 ㄴ. 계5:10 ㄷ. 계1:5 ㅅ. 요18:37
 ㅆ. 마26:28 히12:24, 13:20 ㅇ. 요3:16 ㅈ. 요6:63 ㅊ. 마26:40~41 ㅋ. 요6:63 고후3:6 ㅌ. 겔18:4, 20 ㅍ. 눅24:36~43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살과 사람의 뼈로되 사람의 육신이 육신을 잉태하여 그 무익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배 속에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ㄱ 윤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제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니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오. 기록하신 영으로 말미암아니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ㄷ 온전한 ㄴ 존재로 다시 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상제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ㄴ 하셨습니다.

진리의 신이 물에 태워 생명의 빛으로 변화하여 나신 ㅅ 임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빛으로 태어나신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자의 속에 있는 말씀 곧 진리가 그를 마침내 자유롭게 하는 것이어서 ㅆ, 거듭나는 생명은 육신에 뜻이 갇혀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전생(前生)과는 달리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자재로 여의(如意)한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ㄹ. 성서에서 하느님의 신을 불과 같은 모양으로 ㅆ 형용하시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재생(再生)의 몸은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거듭난 고차원의 생명입니다.

마음대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되고 또 보이는 육신으로도 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바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지 행방을 알 수 없듯, 성령으로 거듭나는 몸은 그의 육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불현듯 나타나서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또 다시 불현듯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려하니라』 임니다 ㅈ.

ㄱ. 요3:4 ㄴ. 요3:6 ㄷ. 계14:5 ㄹ. 요17:24 ㅁ. 요14:6 ㅂ. 창1:3 ㅅ. 요8:32 ㅇ. 요3:5 ㅈ. 출24:17 행2:3 ㅊ. 요3:8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의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고, 그냥 주목하여 본 것만이 아니라 만지기 까지 하여 본 ㄱ 그 몸입니다.

상제께서 인생에 천명하신 진리를 담아서 그 계명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필연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몸과 같이 되는 것이오 ㄴ.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인생과 당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비로서 영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지켜야 할 사랑의 계명은^ㄹ 지키지 않고 거꾸로 자기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하여 투쟁하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입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지체를 가졌어도^ㄴ 자기는 이미 거듭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 건 종교를 가지고 입으로 주여주여 하면서 종교적 행사를 한다고 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ㄹ.

그리스도의 계명을 자신이 실행하여서 가련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헐어서 주는 것 같은 사랑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오^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심판하시는^ㄴ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믿어도 오려낸 쫓가리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말씀들은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성구를 인용하여 시험하였듯^ㄴ 오려낸 성구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산은 창조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하느님의 신을 받은^ㄴ 인생이 모태가 되어 그로부터 태어나는 열매입니다.

ㄱ.요일1:1 ㄴ.롬8:29 고후3:18 빌3:21 후1:4 요일3:1~3, 4:17 ㄷ.마26:28, 요6:39~40, 52~57, 11:25~26 ㄹ.요13:34, 15:10~12 ㄴ.마5:27~30 ㄷ.마7:21 ㄹ.마7:22~27, 25:31~46 ㄹ.요12:48 ㄷ.마4:5~7 ㄷ.마3:11 요14:16, 26, 15:26, 16:7 행1:5, 8, 2:38

하느님의 거룩하신 독생자께서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지속적인 인생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파되는 세상의 소식은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소식에 묻혀 사라지고 말 소식이나 육신이 되시어 탄생하신 천자의 소식은 까마득한 옛날에 하느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그의 혼백이 고대하고 있었던 소식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이^ㄱ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차세대(次世代)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탄생하신 아드님을 보시고 좋아하셨듯이^ㄴ, 상제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ㄷ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실 자가^ㄹ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는^ㄴ 하느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여서 사람의 아들이시고 또 하느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시고^ㄷ 또 아브라함도 그의 씨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모친이어서 탄생하신 후세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유태교를 비롯하여 이슬람과 기독교의 교인까지 육신으로든, 교훈으로든 자기네 조상으로 받들어서 인류 중 대부분의 교인들이 받드는 조상이나, 천하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어서 인생에는 이보다도 더 큰 복음(福音)이 없습니다.

ㄱ.마10:23, 12:8 ㄴ.창1:4 ㄷ.요8:56 ㄹ.창22:18 ㄴ.요8:58 ㄷ.마3:17

영생의 복입니다. 상제의 말씀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ㄱ 영생입니다. 동방에는 삼천갑자 동방삭(東方朔)의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방삭이 나이를 거꾸로 먹듯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구전입니다.

동방삭의 이름같이, 동편에 있는 ㄴ 생명나무의 길을 통하여야 동방의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고 그 과실을 먹으면 영생의 몸이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서왕모(西王母)의 과실을 먹고 석 삼의 삼천갑자 동방삭이 되었으니 월삭(月朔)이면 하느님께 제사하였듯, 죽고 마는 인생의 삶이 뒤집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자기와 같은 씨를 생산하는 자가 『산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산 자』께서 정음 정양의 양위이시오.

그 음양의 합궁으로 ㄹ 말미암아 당신네의 거룩한 신을 한량없이 방출하여 보내셔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수많은 당신네의 씨가 생산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체(正體)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標號)니라』 라고 밝히신 ㅂ 삼위의 님이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라고 하는 칭호인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낳았고 그 독자의 몸에서 이스라엘이 생산되었기 때문이오.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ㅅ 이스라엘이 궁극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대상인 바, 곧 하느님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천부만이 아니오, 성부와 그의 독생자의 양위이시오. 그 성자로 말미암아 그 성자와 같은 하느님의 수많은 씨가 맺히고야 ㅈ 마는 것입니다.

ㄱ. 요11:25~26 ㄴ. 창3:24 ㄷ. 민10:10, 28:11 ㄹ. 눅20:38 ㅁ. 요16:7 ㅂ. 출3:15 ㅅ. 창32:28 ㅇ. 롬11:16 계14:4
ㅈ. 요12:24

가라사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ㄱ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삼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 영생하는 몸으로 거듭날 하느님의 많고 많은 씨입니다.

결국은 하느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당신의 아들들을 생산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하느님의 삼위라고 말합니다.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하느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어 ㄴ 하나가 되게 ㄷ 하신 것이거늘, 성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임하시어 인생 안에 계신 성신을 도리어 인생과 격리하여 인생이 성신을 상대로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 성자의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오,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천부와 천자의 양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의 속에 거하는 ㅈ 성자의 말씀이 곧 그 거룩하신 신의 형체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하늘에 계신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입어서 ㅂ 사람 속에 거하시되 ㅇ 영원히 거하시어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과 진리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하느님의 거룩하신 씨를 몸에 잉태한 것이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태워서(담겨서)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

ㄱ.막12:26 ㄴ.롬3:25요일2:2 계5:9 ㄷ.요11:52, 17:11, 17:22~23 ㄹ.마15:9, 16:12 막7:8 ㅁ.요14:17, 15:26, 16:13 ㅂ.요16:7 벰전1:12 계5:6 ㅅ.마10:20 요14:17 롬8:9~11 고전6:19 ㅈ.요14:16 ㅊ.요5:38, 8:37, 44 요일1:10

태어나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그렇게 명실 공히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입니다ㄱ.
하느님의 성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그 이름들이 삼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천부이시고 그 천부만이 아니라 천부께서 친히 생산하신 독생자 또한 하느님이시며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무수한 하느님의 첫 열매들이 태어나서 삼위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천국의 소식)이 전파되어 무수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신자 수는 심히 불었으나 그 중에는 처음부터 들어왔던 교훈에서 벗어나 특이한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 갑론을박하며 논쟁하였으니, 어찌다가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렇게 철학으로 바뀐 것일까.

사람의 교훈이나 계명은 하느님의 교훈을 변질시켜서 교회 전체에 퍼지는 누룩입니다ㄷ.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회랍의 철학 사상이 유대에 침투되어 바리새와 사두개교의 학파들이 생겨나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따라야 할 주를 도리어 인간이 지능으로 연구하여 정의를 내리는 대상으로 삼는 풍조가 스며들어 신학(神學)이 생겼고 그 신학의 학설 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가르쳐 왔던 교훈과 다른 이설을 들고 나와 파당을 짓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데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웬 말이오.

너나 나나 받들고 따라야 할 지침이 버젓이 있거늘 그 말씀은 어디에 두고,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정을 따른다는 말인가.

ㄱ.마5:45 눅6:35, 16:8 요12:36 롬8:18~25 ㄴ.요1서2:24 ㄷ.마15:3, 9 막7:7~9 엡4:14 ㄹ.마16:12 고전5:6 갈5:9 ㅁ.유다1:4 계2:6, 15

아무튼, 교회의 감독들이라는 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고 하느님을 정의하는 철학적인 용어를 삽입한 문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정통으로 정하여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 회의가 교회의 감독들이 자진하여 모인 회의가 아니라, 로마제국 내 예수의 모든 신자를 묶어서 황제 일인지하의 통일 교단을 만들려는 의도아래 황명으로 소집되었기 국가에서 일체의 경비를 제공하여 소집한 감독들이 다 기립하여 기다리는 가운데,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자주색의 어의를 입은 황제가 자신의 일행과 함께 입장함으로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교회의 파당 중, 로마에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몸이라고 하는 이설을 주장한 당이 있었는데 그 대제는 바로 그 이설을 교회 전체의 정설로 관철하기 위하여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가 그렇게 믿어야 그 모든 신자 위에 군림하려는 자신의 입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집된 감독들 모두가 대략 삼백여 명이었는데 그 중 열 명도 미치지 못하였던 한 당의 주장을 느닷없이 교회 전체의 새 신조로 삼는 것에는 대다수 감독들이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황제는 감독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회의를 한 달이 넘도록 끌어서 결국 그 모든 감독들을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한껏 군림하는 회장에 자신의 취지를 거슬러 결의문에 불복하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대제의 협박 속에서, 그 이설에 저항하던 다수의 감독 편에 있었던 한 신학자가 대제와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감독들이 더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를 따라 그 이설의 문구를 삽입한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대신 그 자리에 사람이 지은 사람의 교훈을 얹혀 놓고 그 신조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한 것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교단에서 추방되고 유형을 받았으며 그들의 주장을 담은 서적들은 모두 수색 되어 불태웠습니다.

그 종교회의 후의 교회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계급의 단체가 되어서 그 계급의 꼭대기는 대제가 되고 아래 일반 신도들은 자유로 성서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ㄱ 위에는 오로지 유일하신 아버지과 유일하신 성자만이 주이시어서,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아야 하고 ㄴ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임금만을 ㄷ 신봉하던 교회가 그들의 임금 대신 로마의 황제를 임금으로 받들며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단체로 변질하였습니다.

그 종교회의 후로 새 신조에 서명한 것을 후회하는 자들이 생기고, 애초부터 그 종교회의에 불참했던 감독들이 있어서 새 신조에 여전히 저항하였기 감독들 전체가 새 신조를 받아들이는 쪽과 저항하는 쪽으로 두 동강이 나 분쟁하였습니다.

황제들이 바뀌어가며 반세기가 지나, 한 장군의 아들이었던 로마파의 교인이 황제가 됨으로써 전같이 종교회의를 또다시 열어서 반대파를 모두 유배 시켜 버렸습니다.

그 황제의 비호 아래 회의를 주도했던 로마파는 자기네 파의 학설을 더욱 넓혀 재확인하는, 이른바 삼위일체(三位一體: 聖父 聖子 聖靈이 하나의 同一한 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神學說)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이 한 단어로 하느님을 정의하고 이를 정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성자께서 성부는 누구이시며 당신은 누구이시고 또 성령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계시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사람이 합성하여 지어낸 한 단어를 얹어서 그것으로 정통과 이단(異端)을 판별하는 심판의 주를 삼은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를 믿는 자가 정통이고 이를 신조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단이랍니다.

ㄱ.마23:8 ㄴ.마6:9 ㄷ.마5:35, 16:28, 21:5, 23:10, 25:34, 27:11

삼위일체가 설정된 이후도 기독교는 저들의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면 성자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이라고 하는 논제를 놓고 수백 년을 내려가며 논쟁이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목을 달리 표명한 것일 뿐,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어떻게 같은 몸인가 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놓고 종교회의를 거듭거듭 열어서 논쟁을 되풀이한 것이고 삼위일체가 제정된 날부터 수백 년을 계속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정죄 되어 추방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성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종교를 갖지 않았다면 사람이 사람을 것처럼 미워하는 살의를 지닐 이유도 없으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를 따른다는 자가 원수는 고사하고 그 하느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여 비방하고 죽이니, 이것이 웬일이오.

예수께서는 박해하는 종교인들의 참소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속에도,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도록 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건만, 그 십자가를 치켜세우고 그 예수를 따른다고 표방하면서 행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인위적인 정의로써 울타리를 치고 그 정의에 이의를 품는 자들을 출회시키고 처형해도 저항이 그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정의가 성서 속의 의미와 다를 뿐 아니라 그 정의를 만든 의도가 성서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상반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명하신 교훈이어서 인생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옳드려 두 손 모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바, 하느님께서 주(主)이시고 인생은 종(從)이 되어서 따르는 것이나, 이는 거꾸로 목을 끈게 세운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인간이 심판의 주이신 하느님을 도리어 자기네의 판단으로 판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하느님을 정의합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ㄱ 난 교훈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핍박을 받는 쪽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핍박하는 쪽이 상대를 저주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를 적으로 만들어 미워하여 저주하고 핍박하며 죽이는 쪽이 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ㄷ 하신 교훈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정통입니다.

그리스도교라 자칭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를 ㄹ 수호하려고 같은 예수를 신앙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허울과 달리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교회라면 예수의 말씀 말고 또 무엇이 정통이오.

인생에 뿌려지는 씨앗이 ㄴ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면 맺어지는 열매 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본을 보이신 발자취와는 상반된 행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조(人造)로 지은 정의(定義)를 받들자니 성부, 성자, 성신이 서로 같지 않다고 하신 성서의 수많은 말씀을 ㄹ 모두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느님과 아래 인생 사이의 임이시어서 ㄹ 하느님과 인생을 하나로 맺으시는 ㄹ 중보(中保)의 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어서 ㄹ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유일하신 임금이시오 ㄹ. 그리스도라는 어휘의 뜻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ㄱ. 요6:31~33, 8:23 약3:15, 17 ㄴ. 요10:10 ㄷ. 마5:44 눅6:27~28 ㄹ. 마15:3, 6, 8~9 ㄴ. 마13:25 ㄷ. 마3:8, 7:16~20, 21:43 ㄹ. 마24:36, 27:46 눅22:42 요5:37, 8:17~18, 14:6, 28(요13:16, 15:21 17:3참조) 15:1, 17:1~8 히5:7~10 ㄹ. 갈3:20 딤후2:5 ㄹ. 요1서2:2, 4:10 ㄹ. 요10:36행4:27 ㄹ. 마23:10, 요18:37 행5:31

하느님께서 아무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셔서 ㄱ 왕(왕이 없던 시절엔 제사장 또는 선지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표상을 삼으셨기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학설을 신조로 세운 의도가 예수만이 인간이 충성을 바쳐야 할 임금임을 부인하도록 ㄹ 유도하여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그 임금 황(皇)의 권위를 사람이 도둑질하기 ㄹ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높은 아버지의 몸예다 갖다가 붙여야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임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빈 허울만 남게 되었고 실제 내용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그 교단의 임금으로 세워서 그의 명을 따르는 종교 단체를 조직한 것입니다.

자리(位)와 몸(體)이 다르다며 삼위가 모두 동일한 몸이라니, 그런 말씀은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을 아버지에게 거꾸로 갖다 붙이고 보내심을 받으신 신을 ㄹ 보내신 신에게 거꾸로 보내 붙여서 동일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근본부터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질의 동일한 몸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ㄹ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조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ㄹ 크게 소리를 지르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느님을 부르신 아들이십니다.

동일체이면 예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하느님이시라고 가르쳐주실 것이지 굳이 그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속이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사람이듯, 물론 예수께서도 하느님이시나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몸입니다.

ㄱ.삼상10:1, 24:6 왕하9:3, 6 ㄴ.요1서2:22 ㄷ.요10:10 ㄹ.요14:26, 15:26계5:6 ㅁ.요일2:22 요이1:7 ㅂ.마27:46
ㅅ.요5:19~23, 10:36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다면 ㄱ 어찌 그 진리 대신 다른 신조를 지어낼 수 있으리오.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신조입니다. 성서에서 성령으로 지정하신 정의가 아닌 정의들이 난무하여 진리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아들이라고 하셨으면 아들로 믿어야 하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ㄴ 하셨으면 성부보다 작으신 다른 하느님이 ㄷ 계신 것을 신조로 삼고 믿어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ㄹ 한 다윗 왕의 예언과 같이 인생의 주가 하늘에 두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 그대로, 성자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느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ㅁ 성령께서 정의하셨으면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ㅂ 또 다른 주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신자입니다.

가라사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ㅅ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성자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실 때까지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의 같은 몸이 아니라 서로 상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敵)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ㅇ 증언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이 있을 수 없듯이 아버지 또한 아들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상대의 몸이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고 요한은 증언하였습니다.

ㄱ. 요8:37, 15:7 요2서1:2 ㄴ.요14:28 ㄷ.요1:18 ㄹ.시110:1 ㅁ.막16:19 ㅂ.마22:41~45 막14:62 행2:33~36, 7:55~56 롬8:34 엡1:20 히1:3, 8:1, 10:12, 12:2 벰전3:22 ㅅ.계3:21 ㅇ.요일2:22~23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회에 침투한 이설을 경고한 것이고 그 이설은 누룩이 되어 결국 전체에 퍼지고 ㄱ 말았습니다.

천부께서 천부와 하나이시라고 하신 말씀은 ㄴ 양위가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라는 말씀이오. 그 양위가 동일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부께서 당신의 독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드님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ㄷ,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드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이신 것이오 ㄹ.

그와 같은 그 하나 그대로, 인생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독생자를 믿고 사랑하면 그 아드님이 인생 안에 인생이 그 아드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고 ㅁ 하신 그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형상은 모세조차 볼 수 없었던 선한 형상입니다. 선한 자는 당신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ㅂ 성자이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거늘 그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ㅅ 하셨다고 당신이 바로 아버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원하심이 따로 있어도,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시어서 육신으로 들고 볼 수 있는 당신의 언행을 통하여 하느님의 성품과 의향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으로서는 하느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의 선하신 형상을 보신 아들님께서 당신이 보고 들으신 대로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언행으로 하느님의 그 선한 형상을 인생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성서에서 구절 하나만 떼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의 논설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왜곡인들 만들지 못하겠소.

성서의 모든 구절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ㄱ.마13:33 고전5:6 갈5:9 ㄴ.요10:30, 17:11, 21~23 ㄷ.요15:9~10 ㄹ.요10:38, 14:10 ㅁ.요17:11, 21 ㅂ.요12:45, 14:9 ㅅ.막10:18 눅18:19 ㅇ.눅22:42 ㅈ.출33:19 ㅊ.요1:18, 6:46 ㅋ.요5:19 ㅌ.요삼서1:11 ㅍ.마4:6 ㅎ.사34:16

아무리 성서의 글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내용이 또 다른 성서의 말씀과 상치하는 내용이면 그 주장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자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느님의 아들』 이라고 하시었으니 물론 성자께서는 온전한 하느님 중 한 분이십니다.

다윗의 가문에 정혼하신 처녀의 몸에서 하느님의 신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또 달리 『사람의 아들』 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하느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온전한 하느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그 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양쪽을 맺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쳐 다른 쪽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성자의 온전한 형상을 허물어서, 결국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덧붙이는 것도 미혹이고 반대로 감추는 것도 미혹입니다.

성자를 성부에 붙여서 성부 성자가 같은 몸이라는 것도 미혹이고 그 반대로 성자를 사람에 붙여서 성자께서 하느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하느님의 권능을 받아 이적(異蹟)을 하였던 모세나 엘리야 같이 사람의 혈통만을 타고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도 미혹입니다.

좌로든 우로든 치우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양쪽이 매 일반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이 두 학파로 나뉘어서 서로 종교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이시고 또 그 살과 뼈로 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승천하시고 그 몸 그대로 이 땅 위에 다시 임하셔서 현실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실 임금이십니다.

아들의 몸을 부인하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몸이라고 여기게 되면

ㄱ.마4:5~7 ㄴ.요5:17~18, 23 ㄷ.요1:18, 14:9 고후4:4 골1:15 빌2:6 히1:3 ㄹ.마12:8, 26:24 요5:27, 13:31~32 ㅁ.요1:14 딤후2:5 ㅂ.요14:6 히4:14~15, 5:1~10 요일2:2 계5:9 ㅅ.요1서2:22~23 ㅇ.계22:18~19 ㅈ.요1:18 ㅊ.신5:32, 17:20 수1:7 삼하14:19 ㅋ.요1:14 ㅌ.요이서7 ㅍ.마24:30 행1:11 요2서:7 ㅎ.계11:7, 19:15

결국,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까지 부정하는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과 뼈의 몸으로 부활하시어 인생에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한 제자 요한은 이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그 뒤를 이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종교인에 대하여 가라사대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한 바울의 증언과 같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짓은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사람의 논리가 없어야 신앙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네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 『우리』의 형상이 사람이 연구하여 논리로 규명되는 형상이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신 자가 아닙니다.

개가 사람을 이해하겠소, 돼지가 사람을 이해하겠소. 그같이 사람의 지능이 파악하는 하나님이면 사람이 구태여 그의 말씀이라 하여 무작정 믿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관절 신앙에 학설이 무엇이요. 크고 작은 많고 많은 파 중에서 저 마다가 정통이고 저 마다가 참이랍니다.

ㄱ. 눅24:39 요1서1:2 ㄴ. 요1서2:22 ㄷ. 요1서2:24~26 ㄹ. 요8:44 ㅁ. 롬1:25 ㅂ. 요17:17 ㅅ. 창1:26

학설로써 설득하고 학설로써 이해하는 것이면 그것은 철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학문으로 배운다면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이를 믿어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서가 처음부터 불가사의한 약속의 말씀이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쓰인 글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아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극히 보잘것없는 한낱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냥 철석같이 그런 줄만 알고 두말없이 그대로 받들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당연하고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정의하여서 금세의 기독교인들이 육신으로 오시는 성자의 재림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보혜사(保惠師)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하나로 묶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그에게 예배하고 기구를 합니다.

성령은 지기(至氣)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속에 이르신 영이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영이 아니시면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종교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반된 학설을 교리로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소위 사제(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들 자신의 불법적 지위 때문입니다.

ㄱ. 마16:27 행1:11 요2서2:7 ㄴ. 요20:22 ㄷ. 눅24:49 요14:26 ㄹ. 요14:16~17 ㅁ. 고전3:16 요1서4:13 ㅂ. 요4:24 ㅅ. 민1:51, 3:45, 16:10, 18:7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다 형제들이라고 하셨건만 그 형제 위에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현금과 십일조를 요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율법은 물론이려니와 그리스도의 교훈과 명령을 고의로 위배하는 행위여서 불법입니다.

보내신 자가 계시어서 보내심을 입은 자도 계시는 것입니다.

천자께서도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어서 ㄹ 보내신 아버지보다는 작으신 분이시듯 ㄴ 성령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ㄷ 영이시기 그리스도보다 작으신 자입니다 ㄱ.

교회당에 다닌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교인이 되어서 세례까지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ㄱ.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상대 쪽에 계신 영입니다.

사람의 육신보다도 더 속 중심에 ㄷ 계시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ㄴ 영이시어서, 인생이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ㄷ 기도하는 ㄹ 것이 진실한 예배입니다.

성령은 인생의 죄를 대속(代贖)하신 어린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에 비로소 인생 속에 거하시게 된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속에 계시되 영원히 계시어서 그를 영세토록 ㄴ 불망(不忘)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었듯이 성령 또한 인생을 가르치시는 선생이시어서 보혜사(保惠師)이시나, 그리스도와는 같은 분이 아닌 다른 ㄱ 선생입니다 ㄱ.

ㄱ. 마23:8 ㄴ. 요10:12~13 ㄷ. 마7:23 ㄹ. 마10:40 요3:17, 34, 5:30, 37 ㄴ. 요14:28 ㄷ. 눅24:49 요14:16 ㄱ. 요13:16
 ㄴ. 행8:9~17, 19:1~7 ㄷ. 롬8:9 ㄹ. 요4:14, 14:17 행2:4 요1서2:27, 4:13 ㄴ. 속12:10 요4:24 롬8:26~27 ㄷ. 요4:24
 ㄹ. 엡6:18 유1:20 ㄴ. 요14:16 ㄷ. 요14:16 ㄱ. 마23:8 요16:13

사람이 설교를 골백번을 들어도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자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어서 그 인생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성자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 나게』 하시어 ㄱ 만사(萬事)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선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 다시 오실 임금이시나 성령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ㄴ 선생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만인이 볼 수 있는 ㄷ 육신으로 다시 오실 주이시나,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기도하고 성령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학설이 그의 속에 있어서 세상과 같이 그 성령을 알지 못하기 ㄷ 때문입니다.

교과를 믿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 들임으로써 ㄴ 진리의 영이 강령하시는 것이어서 그는 한없는 평안을 맛보고 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천진하여서 부모의 말이라면 팔로 메주를 쑤대도 곧이듣듯, 말씀 그대로 아이같이 믿다 보면 마음속에 계신 말씀의 신이 친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ㄷ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비밀을 ㄱ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ㄴ.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판단하시는 주이십니다. 인생이 입술로 골백번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여도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자인지는 오직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오 ㄱ.

ㄱ. 요14:26 ㄴ. 요14:17 ㄷ. 마24:30 ㄹ. 요14:17 ㄴ. 막10:15 ㄷ. 요14:27 ㄱ. 마11:25 요14:21, 26, 16:13 요1서2:27 ㄱ. 마13:11 계10:7 ㄴ. 마19:14 ㄷ. 히4:12

속의 심지는 커녕, 자신의 머리에 붙어 있는 터럭조차도 몇인지 나는 나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ㄱ.

인생이 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어디로 가는 무엇인지, 당장 내일의 나를 나는 알지 못하나, 이 몸이 태어나기 전은 물론 그 일천 세대 전 후까지도 연결하시어 주관하시는 주이십니다.

인생이 하느님을 믿는 것은 인생 누구나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이라면 어찌 늙고 병들어 죽으리오.

태어난 자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몸이고 이 순간에도 숨이 쉬어지니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며 역시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속언에 철학이라는 말에 개똥을 붙여서 말을 하듯, 철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는 영생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천상이나 천하에나 아무리 벗어나려 하여도 여전히 남이신 그렇게 오직 뿐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게 오직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섬긴다고 하는 자가 도리어 자기 쪽의 하느님을 만들어 그 인조 된 신을 인조 된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꼭 손으로 만들어야 우상이 아닙니다.

신비주의니 형식주의니 하며 서로 반대하고 구 신학과 신 신학이 서로 상충하며, 이 단체도 저 단체도 이단이고 내 쪽만이 정통이라 주장하나 어찌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께서 하필이면 쪽에서 쪽을 나눈 그 쪼가리의 하느님이라는 말입니까.

같은 성자를 같은 말씀대로 따른다면야 어찌 구교와 개신교가 따로

ㄱ.마10:30 ㄴ.시139:13~16, 사44:24, 49:1 ㄷ.출20:6, 34:7 ㄹ.골2:8 ㅁ.요17:3 ㅂ.막12:29~31 ㅅ.요8:49

있어 서로 논쟁하겠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울타리고 문입니다.

종교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교 인이 신앙하는 하느님이나 기독교 인이 신앙하는 하느님이나 모슬렘이 신앙하는 하느님이나 다 아브라함의 그 하느님을 신앙하건만 어찌 서로 그렇게도 반목하나.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여도 죄이거늘 ㄱ 하물며 사람이 하느님을 판단하고 정의하여서 하느님을 자기 쪽의 신으로 만들어 세워 놓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며 싸우면서, 입술은 저 마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ㄴ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력이 없는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 보려는 의지가 없는지, 하느님께 대하여서는 자기의 판단 자체가 없었던 자가 곧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자주적인 생각이 없었으면 하느님께서 어린 외 적자를 잡아(屠殺하여) 바치겠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것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칼을 잡고 그냥 잡으려 했던 ㄹ 분이시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현세에 있어서 어린 자식을 죽이려 한다면, 그를 악마가 썩은 자로 ㅁ 낙인을 찍어 저주할 자가 다름 아닌 내가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山堂)에서 제사하는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마실 물까지 구걸하시며 그 여인과 사귀신 것을 기뻐하신 나머지, 음식을 권하는 제자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일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멸시하여서 상면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더구나 남자도 아닌 여인과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ㄴ.마7:1~2 ㄷ.눅6:37~38, 롬14:13 고전4:5 ㄴ.창15:6 ㄷ.롬4:16 갈3:7 ㄹ.창22:9~10 ㅁ.마12:24

당연히 제자들까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귀시는 예수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선생께서 하시는 행위였기 그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문제를 삼지 못하였습니다 ㄱ.

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산당(山堂)에서 예배하는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종교는 달랐으나 그 여인이 신앙하던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산에서 부르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 여인 또한 유대인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와 같이 이방인의 아버지이시요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모든 인생의 아버지이십니다.

단지, 그 사마리아인의 교나 유대인의 교와 같이 어느 특정한 장소의 특정한 전당을 신성하게 여겨서 그곳에 찾아가 그들 방식으로 예배하는 종교적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어서 그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 사실과 구원은 성서대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ㄷ.

천자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종교를 창설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서로 반목하는 종교를 초월하여 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참 믿음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신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준행하는 그 선행일 뿐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ㄱ. 요4:27 ㄴ. 창4:25(원문은 「다른 씨를 점지하셨다」 입니다.) ㄷ. 요4:21~26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할 내 이웃은 ㄱ 내가 만나는 주위의 타인이고 내 집안의 이웃은 내 집안과 더불어 사는 남의 집안이며 내 민족의 이웃은 내 민족 주위의 타민족입니다.

천자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고를 당하였던 한 유대인에게 선행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유대교의 율법 사에게 이르시기를 유대인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그와 같은 이웃 민족이라고 가르쳐 주신 ㄱ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우의 재난을 당한 자를 가까이하여 봤자 손해밖엔 될 것이 없어도 그 사마리아 사람같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스스로 다가가 남의 상처를 제 자식 상처같이 돌보는 행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이건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구별하고 종파를 구별하며 더 나아가 자기네 교회를 구별하고 그들의 모임 안에서조차 특별이라는 소리를 거둡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오 세리(稅吏)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취게 하시며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온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ㄴ.

주의 계명이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만 ㄷ 자기가 자기네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남들에게 왕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대우를 거꾸로 남에게 하라시는 것입니다 ㄷ.

남 앞에 저 자신 쪽을 낮추고 남의 집안을 높이기 위하여 거꾸로 제 식구를 낮추어서 대접하는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을 보았다면 그는 손님입니다. 유난히

ㄱ.마22:37~40 ㄴ.눅10:25~37 ㄷ.마5:46~48 ㄹ.요13:34 요이1:5 ㄹ.마7:12

성서에서는 객과 과부와 고아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와 유대 나라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하셨으며,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종족을 초월하여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더욱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질시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였던 종교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대주재(大主帝)를 자기네 민족만의 신으로 바꾸어 놓고 사람이 인위로 만든 허례와 허식을 관행 화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가르쳤기 자기네와 다른 장소에서 달리 예배한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어서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인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실생활의 선행이건만 인생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그 의와 인과 신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덮어서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는 유대인의 각 지파가 율법대로 자기네의 지역에서 농경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토지를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도 모두 생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건만, 그 종교인들은 하고 많은 율법 중에서 십일조를 걸러내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레위 족속과 객과 과부와 고아가 먹게 하려고 십일조를 낸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과부가 바치는 것을 종교인들이 삼켰으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오?

그들이 율법이랍시고 지키는 것이 실상 허울만을 도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율법이다 공의(公義)와 사랑을 위하여

ㄱ.신14:29, 16:11, 14, 24:17, 19, 20, 21 시146:9 ㄴ.신26:12 ㄷ.신27:19 ㄹ.수2:11 시67:3 ㄹ.행4:24 계6:10 ㄹ.마15:3, 6, 9 막7:7~13 ㄹ.요4:20 ㄹ.마23:23 ㄹ.사1:13 ㄹ.마7:15~27, 25:31~46 ㄹ.막12:40

있는 것이건만, 그들은 그 핵심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내고 그것마저 인위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대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진정한 전도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배워 선행하는 성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함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것입니다.

오직 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좇아 손(客)을 보면 손님으로 대하던 미풍은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을 섬기며 그 무도한 풍속에 물들어 살면서 도리어 같은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자취를 찾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웃에게는 자기네 자존심을 내세워 멸시하였습니다.

인생에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수를 주실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이건만, 도리어 이웃민족의 한 여인에게 접근해서 마실 물을 구걸하셨듯이,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상대를 대하는 자세와 행동이 천국을 전파하는 자의 참된 처신입니다.

천자께로부터 생명의 도를 전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친지에게 메시아를 전파하였으니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의례를 거행하는 특정한 전당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서로 형제가 되어 사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남녀의 결합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건만,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자의 몸부터 범하는 이방의 무도한 풍속에 큰 시련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방인 중에서 외아들의 배필을 구하지 않고 고향에 사는 씨족 중에서 구하기 위하여 심복에게

ㄱ.눅11:42 ㄴ.마22:39 막12:31 ㄷ.마5:14 베전2:12 ㄹ.창18:1~5, 19:2 히13:2 ㅁ.요8:12 ㅂ.마18:20 요2:19~21, 4:21 ㅅ.마23:8 ㅇ.요1서1:3~7 ㅈ.창20:11 마12:8 눅12:5 ㅊ.창19:31 ㅋ.레18:3 대하13:9 ㅌ.창20장전체 ㅍ.창24:1~10

그 일을 대행할 사명을 맡겼기 그 심복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본토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으로 빠져서 사는 셈(노아의 장남)의 종족 중에서 종가의 종손이었기 실상은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의 본래의 주인이었고 그의 독자 또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일한 소유주건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본토를 떠나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있던 때여서 이삭이 배필을 구하는 때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시가(娣家) 쪽을 대행한 그 심복은 객이 되어서 본토의 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구하였고 이에 그 여인은 예를 갖추어 그 객을 주(主)라고 존칭 하여 부르면서 객이 마실 물만이 아니라 물을 길어다 객의 약대들까지 먹이며 종 노릇을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미풍양속이 하느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징표가 되어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은 배필을 얻게 되었고 그 배필의 몸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임금이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오셨건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그같이 선하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상제를 섬기던 제자들과 여인들과도 같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獨生子)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의 종교를 창설하셔서 고작 그 종교의 교주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상제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진정한 하느님의 씨를 얻으실 목적으로 당신의 배필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를 초월하셔서 인생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길이시고 인생이 진실로 찾아야 할 진리이시며 인생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여야 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창조주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은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ㄱ.창10:30 ㄴ.창9:26 ㄷ.창24:36 ㄹ.창24:18 ㅁ.창24:10~67 ㅂ.요14:6 ㅅ.마9:15, 25:1 요3:29 계21:9 ㅇ.요14:6 ㅈ.사1:10~17

유대의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만유의 대 주재(主宰)를 자기네 종교의 신으로 만들었던 것 같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특정 종교의 교주로 만들어 놓았고 그러한 외식 때문에 세상의 못 사람이 그것을 보고 무신론자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래로 무신론이라는 어휘나 개념은 인류에 있지 않았던 것인데 근자에 와 서양의 갖가지 이름을 가진 가상적 신들의 이야기와 함께 철학적 논조가 범람하고 일상적인 행동은 선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만이 옳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양 선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동방도 서방과 같이 무신론자들이 생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를 증명하시는 말씀이시므로, 그 성서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상속 받으신 소유주께서 인종과 종교를 망라한 모든 인생에 이르신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생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한 의례를 행사하는 하나의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계명을 지키는 본질에서 벗어나, 일요일에 교회당에 가서 성가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성직자의 설교와 기도 소리를 듣고 헌금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변질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같은 종교적 의식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예수의 말씀은 고사하고 그 제자들의 편지에 조차 구나 절은 물론, 단어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ㄱ.마11:25 행4:24 계6:10 ㄴ.눅16:15 ㄷ.요3:16~17 ㄹ.요5:39 ㅁ.창1:26, 3:22 요1:1~3 ㅂ.마21:38, 28:18 요17:2, 10 ㅅ.눅6:46

하느님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비록 신이라고 하는 명사를 찾지 않는 불승(佛僧)이라 할지라도 생사의 절박한 찰나에는 저도 모르게 하느님을 외치듯, 하느님만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어느 한 쪽의 민족과 종교가 아니라 만민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라는 어휘는 조선에서 그 존재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말하여왔던 일상적인 어휘였습니다.

하느님만이 인생의 소유주이시고 인생을 판단하시는 온 세상 만민의 주이시며 인생을 구원하시는 주이시니 그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느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행과 계시를 읽고 들어서 그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그 아드님을 인생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이 잃어버린 인생의 근본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신 것이어서 하느님을 유일하신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시었고 인생이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신을 받아서 결국은 영생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인과 성서에서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단체에 등록하여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 그 집단의 특정한 예식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일컫는 어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도한 바울의 증언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하느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 종교의 교리를 따르기보다는 성서의 말씀을 따르고 그 종교단체의 조직을 따르기보다는 하느님과 그의 독생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ㄱ.요3:16 ㄴ.출9:29, 19:5 신10:14 시24:1, 50:12 고전10:26 ㄷ.요17:17 ㄹ.계1:3 ㅁ.마6:9, 14, 23:9 ㅂ.롬8:9 ㅅ.요4:23

마테오리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서력 천오백팔십삼 년에 동양에 천국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서 중국에 도착한 마테오리치는 하느님께 관하여 교황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 와서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번역하지 않고 성서의 본의에 근거하여 천주 또는 상제로 표기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맹의 도가 의(義)와 인(仁)과 신(信)이라고 하는 7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본질과 서로 다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서 조상에 예하는 제사까지도 반대하지 않았으니 그는 종교의 형식과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따라서 동방에 천국을 증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덕으로 극동의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천주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이 일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큰 논란이 되어 천주 또는 상제라고 하는 명칭과 조상의 제사 등을 금지한 교황청의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이 실상은 교황의 칙령을 어긴 어휘건만 여전히 그 이름 자를 쓰고 있고 그 때문에 조선에서도 천주교 이후에 전파된 개신교와는 달리 조선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하느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7.마23:23